소외된 어르신을 위하여

황길연씨 '불우노인돕기' 초대전

한국화가 황길연씨가 소외된 노인들을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자리 아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황씨는 회갑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림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동양화에 점묘라는 서양화 기법을 접목시킨 독창적 화풍을 추구하고 있는 황씨는 향토적인 정감과 색채를 담은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황씨는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옥, 창호지 창틀, 원앙, 초가집 등 민화적 정취가 묻어나는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을 고향의 서정으로 이끈다.

축구 선수 출신 화가로도 유명한 황씨는 지난 1975년 실업팀 선수생활을 접고 붓을 잡은 뒤 광주대 산업디자인과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콜레기움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늘밤 광주문예회관대극장

콜레기움 챔버 오케스트라 제 12회 정기연주회가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우광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유럽과 한국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김창헌과 파곳 연주자 오주원(이화여대 대학원)씨가 협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2번 D장조', 레스피기의 '고전적 무곡과 아리아'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동아시아방송PD포럼' 온 김지하 시인

"核은 반생명의 대명사 北 행동 용인될 수 없다"

"핵은 반생명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대명사입니다."

오랫동안 저항시인으로 불렸던 김지하(65)씨의 요즘 화두는 생명이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예의 생명사상의 틀로 북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2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방송프로듀서포럼'에 참석차 광주에 온 김 시인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은 어떤 식으로든 용인될 수 없다"며 "그렇지만 북한핵과 관련된 시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 느끼듯 나도 불안"

김 시인은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핵에 대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똑같이 느낀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0~70년대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여러 차례 투옥됐고, 완전 석방된 1980년대 이후에는 최제우(崔濟愚)·최시형(崔時亨) 등의 민중 사상에 독자적 해석을 더한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시인 정현종(67)씨가 자신의 시를 통해 '잘못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문인들이 (문학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것과 관련, 김 시인은 "생명존중에 대해 오랫동안 시를 썼던 정씨의 입장을 다분히 보여준 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정씨의 시를 적극 지지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김 시인은 한·중·일 3국의 방송프로듀서 200여명이 모인 포럼 개막식에서 '21세기 조화의 시대와 생명사상'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지금과 같은 대혼돈(Big Chaos)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국의 '화해(和諧)', 일본의 '화(和)', 한국의 '화쟁(和諍)' 즉, '조화(調和)'"라고 역설했다.

"최근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조화보다는 긴장이 더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쟁사상'으로 동북아 조화

중국은 소수민족 탄압과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개인을 무시한 전체주의·극우파의 세력화가 두드러지면서 세 나라 사이의 조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가 요구하는 조화는 개인의 다양성과 개체성 등 자유를 전제로 한 융화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화쟁' 사상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며 "'화쟁'이 한류의 중심 콘텐츠가 돼 동북아의 여러 나라로 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나는 재즈로…음악 영화로…

시월의 마지막 밤 수놓아 볼까

10월 마지막 날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신나는 재즈 공연장에 찾아가보자. 31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 1회 광신대 실용음악 정기연주회는 스윙 등 흥겨운 재즈와 가요로 꾸며진다.

재즈 퀸텟이 '스페인' 등 칙 코리아와 찰리 파커의 히트곡을 선사하며 퍼커션 앙상블이 'One & three drums'를 들려준다. 피날레는 12인조 밴드가 출연, 클라츠 브라더스와 쿠바 퍼커션의 히트곡인 '맘보자르트-모차르트 교향곡 40번', 폴 메카트니의 'The heart of the days'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650-1130.

록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극장으로 달려가 보자.

광주극장은 31일 오후 8시 20분 올 선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록 다큐멘터리 '글래스톤베리'를 특별 상영한다. '글래스톤베리'는 1970년 탄생한 동명의 세계적인 록 음악 축제의 연대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라디오 헤드, 데이빗 보위, 비욕, 블러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던 음악 영화 '헤드윅' 상영 때처럼 춤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선착순 입장객 100명에게는 무료로 맥주를 제공하고 상영 후에는 추첨을 통해 포도주 등을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문의 062-225-8850.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는 31일 오후 7시 '10월의 마지막 밤 음악콘서트'가 열린다. 문의 062-654-4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경계해야 할 '문화쏠림'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언급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법칙 가운데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있다. 가장 많이 팔린(사회적으로 증거받은) 상품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요지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제품의 품질 보다는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라는 '숫자 컨셉'을 내밀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 법칙이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가 있다. 바로 문화계다. 언제부턴가 문화계는 콘텐츠보다는 '얼마나 많이 팔렸냐'에 더 관심을 두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 '뭔가 다르니까 많이 팔리지 않겠어'라며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부 소비자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드라마는 비 윤리적인 내용일지라도 시청률만 높으면 모든 게 용서(?)된다. 그 뿐인가. 영화계는 작품성 보다는 단시간내에 관객대박을 터뜨리는 영화들이 조명을 받고, 출판계도 베스트셀러권에 진입한 서적들이 독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성공한다.

문화상품의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콘텐츠의 질 보다는 화려한 포장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한 인기아나운서를 방송에서 불명예 퇴진시킨 밀리언 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의 대리번역 파동도 알고보면 스타마케팅이란 상술에 눈이 먼 우리 사회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괴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란 금자탑을 쌓기까지에는 영화의 완성도가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스크린독점(620개)이란 '와이드 릴리즈'의 덕도 빼놓을 수 없다. 개봉 첫주 성적이 영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는 영화배급사들이 스크린 싹쓸이에 사활을 거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같은 숫자마케팅의 폐해는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쏠림이다. 재미와 감동을 갖춘 수작들이 적절한 마케팅과 배급망을 찾지못해 '마이너 문화'로 추락한다. 순수 예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블록버스터급 뮤지컬과 공연들은 매진행렬을 벌이며 롱런 하지만, 정통연극들은 1~2주를 못버티고 막을 내린다. 이같은 양극화된 토양위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된다.

획일화된 문화는 더 이상 '문화적'이지 않다. 지금처럼 콘텐츠의 질보다 '대박'이란 외형에 현혹되다보면, 머지않아 획일화된 상품이 문화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그로인한 댓가는 규격화된 문화를 소비해야 하는 부메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 문화의 옥석(玉石)을 가려내는 심미안이 절실한 이유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